

기술분석보고서 소재

금비(00887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금비(008870)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용기 제조기업

기업정보(2025.11.25 기준)

대표자	고기영
설립일자	1973.06.05
상장일자	1990.06.08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소재
주요제품	유리제품(주류병) 제조/화장품 도소매, 수입(병제조기기)

시세정보(2025.11.25 기준)

현재가(원)	54,600
액면가(원)	5,000
시가총액(억 원)	546
발행주식수	1,000,000
52주 최고가(원)	65,200
52주 최저가(원)	50,500
외국인지분율(%)	0.41
주요주주	(주)금비, 고기영, (주)금비비엔피, 고병현

■ 국내 대표 포장용기 제조기업

(주)금비(공시회사명 ‘금비’, 이하 동사)는 유리병, 병마개, 플라스틱 용기 등 다양한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류·식음료·제약·화장품 등 폭넓은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유리사업부를 중심으로 삼화왕관의 Cap사업부와 신우의 플라스틱용기 사업부를 함께 운영하며, 각 사업부가 특화된 제품을 통해 산업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아산·안산·의왕 등 주요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국내 포장용기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술 기반의 제조 역량과 품질 경쟁력

동사는 용해로 기반의 대량 유리병 생산능력과 금속·비금속 캡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Cap 제조기술, 사출·도장·조립까지 통합된 플라스틱 용기 일관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리병 경량화, 강도 개선, 신규 색상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며 제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Cap사업부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될 만큼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 부문은 금형 설계 능력과 후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브랜드사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시장 변화 대응 및 성장 가능성

동사는 친환경 소비 확산, 프리미엄 주류 증가, 기능성 음료 성장 등 포장용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리용기는 재활용성과 제품 안전성이 강조되며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Cap 시장은 생수·탄산음료 중심의 안정적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는 K-뷰티의 글로벌 확대로 해외 수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동사는 해외시장 개척을 병행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전 사업부에 걸친 기술개발과 고객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3분기 결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09	2,350	2.8	0	0.0	-205	-8.7	-13.84	-6.36	130.0	-13,226	106,871	N/A	0.54
2023.09	2,510	6.8	59	2.3	-85	-3.4	-8.14	-2.81	141.3	-6,781	97,823	N/A	0.83
2024.09	2,595	3.4	124	4.8	60	2.3	4.44	2.06	126.4	3,588	99,570	16.75	0.60

기업경쟁력

다각화된 포장용기 포트폴리오	유리병·병마개·플라스틱 용기를 아우르는 종합 제조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기술 중심 생산 경쟁력	유리 경량화, 금속·비금속 캡 제조기술, 일관생산 플라스틱 용기 공정 등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통해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유리병 경량화 기술	- 제품 강도는 유지하면서 무게를 낮추는 설계·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소주·맥주·음료 등 주요 고객사의 경량 유리병 제품에 적용되고 있음	음료 주류 위스키 음식, 차, 소스 화장품
정밀 사출·후가공 일관생산 기술	- 금형 설계부터 사출·UV코팅·조립까지 자체 수행하는 공정을 통해 화장품 브랜드사의 기능성·디자인형 플라스틱 용기 등에 적용되고 있음	

시장경쟁력

안정적 공급 기반	유리병·병마개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된 생산 경험과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주류·음료 기업과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규제 기반의 경쟁 우위	경쟁사 대비 높은 신뢰도와 규제 기반의 진입장벽을 동시에 확보하여 Cap사업부가 국세청 지정 납세병마개 제조 자격을 보유해 주류 시장 내 필수 공급자로 자리하고 있음
수요 안정성	주류·음료뿐 아니라 화장품·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 포장용기를 공급하며 시장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며 신규 제품 적용 기회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경량화 기술을 통해 원재료 사용량 및 에너지 소비 저감 ◎ 파유리의 선별·재가공을 통해 재생원료 활용 및 폐기물 배출 축소
S 사회책임경영	◎ ISO 22000 등 식품안전·품질관리 인증 기반의 제품 안전 강화 ◎ 임직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중심의 조직문화 관리
G 기업지배구조	◎ 상근감사 및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 정기 공시와 경영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 경영 기조

I. 기업 현황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용기 제조기업

동사는 1973년에 설립되어 유리병·병마개·플라스틱 용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요 제품은 주류·음료·제약·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유리병과 금속·비금속 Cap, 화장품용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요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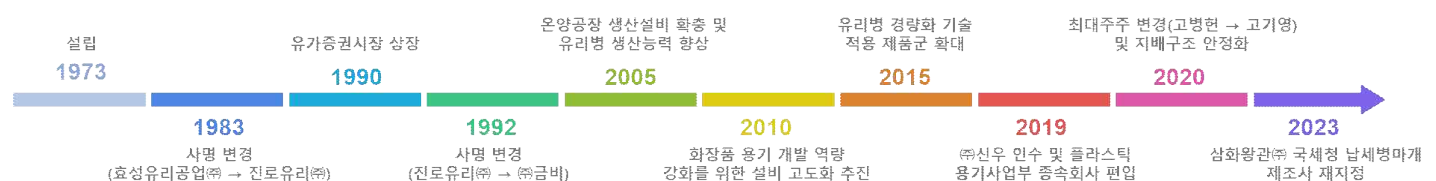
동사는 국내 대표 포장용기 전문 제조기업으로, 유리병·병마개·플라스틱 용기 등을 중심으로 주류·음료·제약·화장품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천·아산·안산·의왕 등 주요 거점에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리사업부와 삼화왕관의 Cap사업부, 신우의 플라스틱용기 사업부를 통해 원료 용해부터 사출·도장·조립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량화 유리병 개발, 금속·비금속 캡 생산기술, 일관생산형 플라스틱 용기 공정 등 차별화된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안정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1973년 효성유리공업(주)로 설립된 이후 1983년 진로유리(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기업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992년 현재의 사명인 (주)금비로 변경한 뒤 생산설비 확충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며 유리병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05년 온양공장 설비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화장품 용기 관련 설비를 고도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이어갔다. 2015년 유리병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군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 (주)신우를 인수해 플라스틱 용기사업부를 중속회사로 편입하였다. 2020년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지배구조를 정비하였고, 2023년 삼화왕관(주)이 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사로 재지정되며 주류 포장용기 분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고기영 대표이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와 UCLA MBA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영 감각과 재무적 전문성을 겸비한 경영자로 평가된다. 1996년 LG화학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뒤 1997년 동사 기획실에 합류하여 핵심 전략 수립과 조직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후 영업기획, 전무·부사장·사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전 사업부문을 두루 이끌어 왔다. 2003년부터 대표이사로서 동사의 성장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유리·캡·플라스틱 용기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삼화왕관(주)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겸임하며 그룹 차원의 포장용기 사업 경쟁력을 통합적으로 높여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산업 이해도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안정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동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연혁



■ 주주현황

2025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고기영 대표로 지분율은 11.77%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은 57.03%로 확인된다. 주요 특수관계인으로는 고병현(8.58%), 고강희(8.09%), 고창희(7.19%), 장명숙(1.14%), 고명준(0.49%), 고정화(0.44%), 고명지(0.04%)가 있으며, 출자법인인 금비비엔피(11.09%), 명미인터내셔널(0.50%), 우천개발(7.70%)도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 주주현황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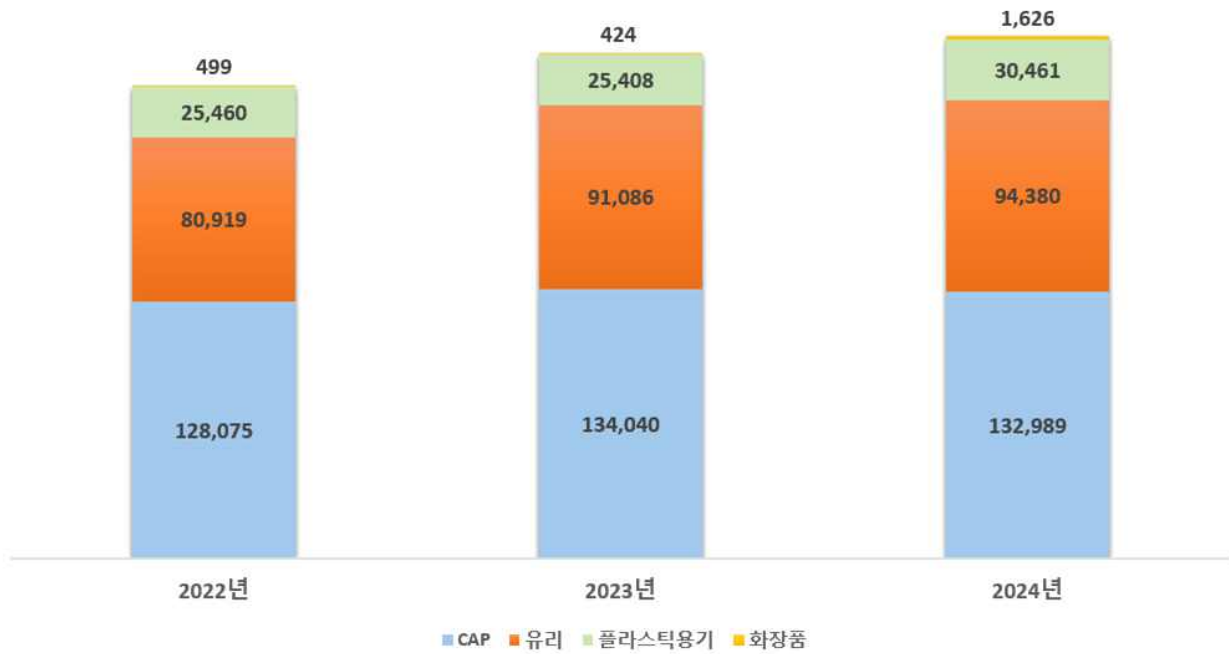
동사는 유리병, 병마개(CAP), 플라스틱 용기 및 화장품 상품을 중심으로 포장용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사업부문은 유리사업, CAP사업부, 플라스틱사업부, 화장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병은 주류·음료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CAP사업부(삼화왕관)는 금속·비금속 캡 전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병마개 제조사로서 2028년까지 유효한 국제청 납세병마개 제조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플라스틱사업부(신우)는 화장품 용기 중심의 기능성·디자인 특화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화장품사업부는 화장품 완제품을 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2,594.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매출은 유리사업 943.8억 원, 화장품사업 16.3억 원, CAP사업부 1,329.9억 원, 플라스틱사업부 304.6억 원으로 확인된다. 특히 CAP사업부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매출원 역할을 하고 있고, 유리사업도 내수 기반이 강해 꾸준한 실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매출이 2,534.3억 원, 해외 매출이 60.2억 원으로 내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플라스틱사업부는 주요 화장품 브랜드사 향 거래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성장이 있었다.

동사는 생산효율 개선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중심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리병 경량화 확대와 CAP사업부의 제조기술 고도화를 통해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CAP사업부는 국내 주류·음료 시장의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매출 기여가 지속될 전망이며, 플라스틱사업부는 화장품 용기 중심의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 낮으나, 삼화왕관 USA 법인의 매출 확대 및 유리병 수출 증가로 점진적 외형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는 친환경 포장재 선호 확대와 재활용 규제 강화 등 시장 변화에 맞춰 생산공정 효율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 연도별 매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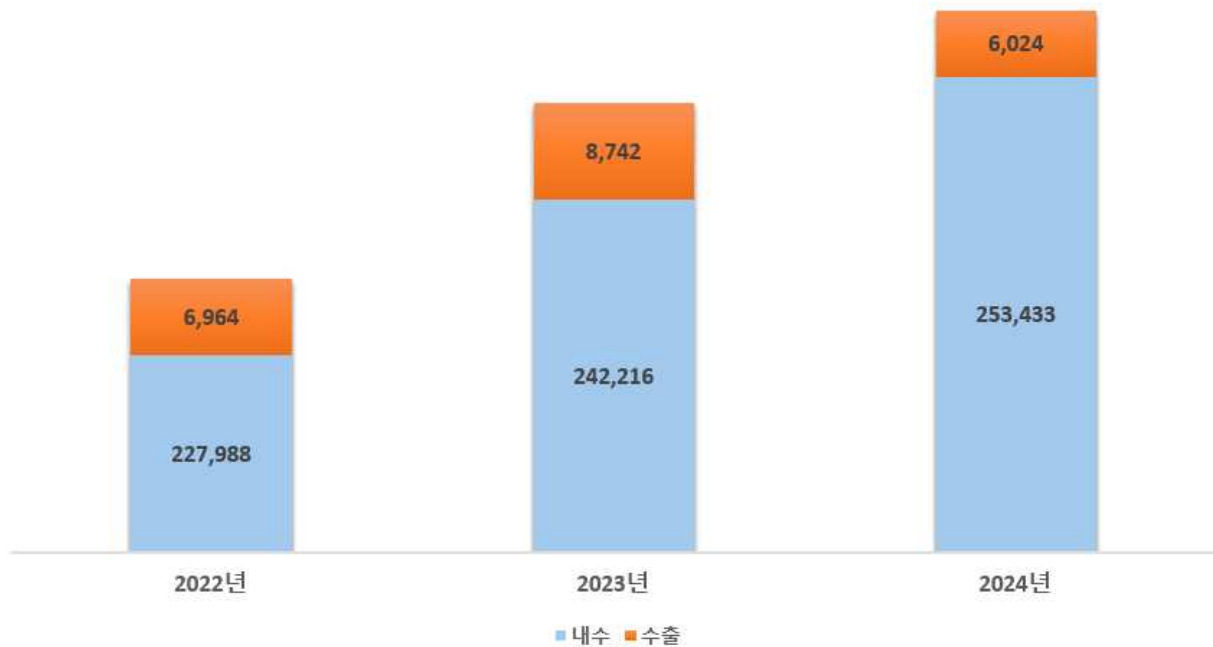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4. 내수 및 수출실적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국내외 포장용기 시장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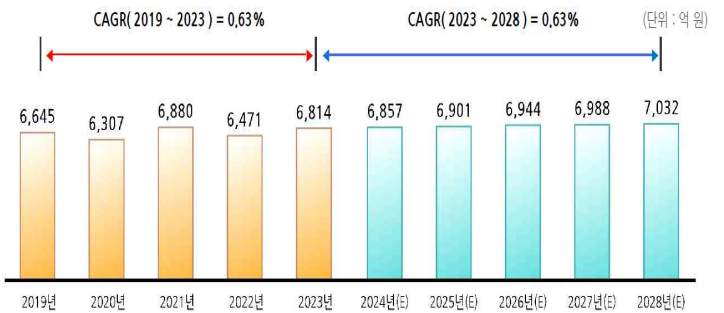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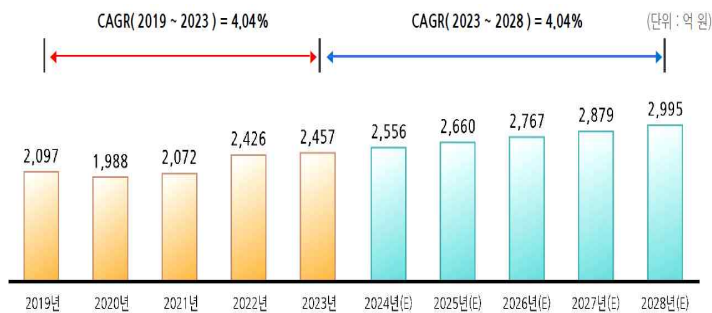
국내 병마개·유리용기 시장은 주류·음료 중심의 안정적 수요와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 또한 ESG 확산과 프리미엄 패키징 트렌드로 포장용기 전반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동사의 주요 제품인 병마개에 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고서(2025)에 따르면, 국내 병마개 출하금액은 2019년 2,097억 원에서 2023년 2,457억 원으로 연평균 4.04% 증가하였으며, 동 CAGR 적용 시 2028년에는 2,99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리용기에 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고서(2025)에 따르면, 국내 유리용기 출하금액은 2019년 6,645억 원에서 2023년 6,814억 원으로 연평균 0.63% 증가하였으며, 동 CAGR 적용 시 2028년에는 7,03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국내 병마개 시장 규모

그림 6. 국내 유리용기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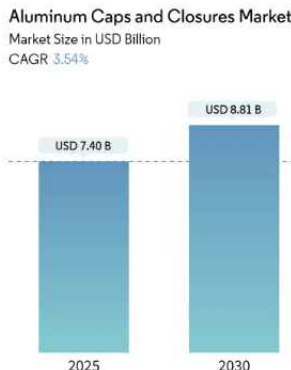


출처: 한국신용정보원(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ordor Intelligence의 보고서(2025)에 따르면, 알루미늄 병마개 시장은 2025년 약 74억 달러에서 2030년 88억 달러로 연평균 3.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리용기에 관하여 Grand View Research의 보고서(2025)에 따르면, 2025년 약 82억 달러에서 2030년 102.3억 달러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세계 알루미늄 병마개 시장 규모

그림 8. 국내 유리용기 시장 규모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5), Grand View Research(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특성

국내 포장용기 산업은 유리병·병마개·플라스틱 용기 등 세부 시장으로 구성되며, 주류·음료·제약·화장품 등 완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수직적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다.

유리병 산업은 대규모 용해로 설비와 안정적 원료 공급망이 필수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와 고정비가 요구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특히 유리병은 파손 위험과 높은 물류비로 인해 내수 중심의 공급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시장은 금비·SGC에너지·테크팩솔루션 등 소수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를 보인다.

병마개 산업은 음료·주류·식품·제약 등 포장재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장 규모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납세용 병마개처럼 규제가 적용되는 특수시장과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일반시장으로 구분된다.

플라스틱 용기 산업은 패키지 디자인·차별화된 기능성·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산업으로, 빠른 제품 개발 주기와 고객 맞춤형 대응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 기술 및 경쟁 환경

유리병 산업은 경량화·고내구성·재활용성 강화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로, 최근에는 파유리 재활용 비율 확대와 에너지 절감 기술이 중점 개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병마개 산업은 소재·가공기술 외에도 개봉 안전성, 내용물 보호 성능, 분리배출 용이성 등 환경·사용성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납세병마개는 주세법에 따른 국세청 지정 제도가 적용되어 기술 신뢰성과 품질 통제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플라스틱 용기 산업은 사출·코팅·조립 등 공정 통합 역량과 정밀 금형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며, 친환경 수지·재활용 PET·바이오 기반 소재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포장용기 산업은 ESG 규제 강화, 플라스틱 사용 저감 트렌드, 브랜드사의 디자인 차별화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으며,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납기 수행 능력이 시장 지위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 산업 전망

포장용기 산업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 확대에 따라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유리병은 무한 재활용 가능성과 안전성이 부각되며 친환경 포장재로 재평가되고 있고, 경량화 기술 확대로 물류 효율성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병마개 산업은 프리미엄 주류 성장, 음료시장 다양화와 함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며, 납세병마개 시장은 법적 지정 제도에 따라 안정적 공급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용기 산업은 K-뷰티 중심의 글로벌 화장품 수요 증가와 기능성·고급형 패키지의 확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며,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와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등 친환경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ESG 경영 확산에 따른 포장재 규제 강화,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호 심화, 브랜드사의 디자인·사용성 요구 증가로 인해 기술·품질·친환경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III. 기술분석

알루미늄 병마개·유리용기 기반의 기술 선도 역량

동사는 납세병마개 제조기술, 고속 캡핑 및 국제 품질규격을 충족하는 금속·비금속 캡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병마개 시장 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유리병 경량화 및 파유리 재활용 기술을 통해 원료 사용량과 에너지 소비를 동시에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알루미늄·비금속 전 제품군을 아우르는 병마개 기술 경쟁력

동사는 자회사 삼화왕관을 통해 병마개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이 지정한 납세병마개 제조 자격을 2028년 2월 29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류 포장용 병마개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병마개 시장은 소수 기업이 점유하는 과점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경제(2019)에 따르면 동사는 국내 병마개 시장에서 5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도 유사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9. 동사 병마개 제품(Crown Cap, ROPP Cap, Plastic Cap 등)



출처: 삼화왕관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동사는 국내 병마개 업체 중 유일하게 금속 캡과 비금속 캡 전 제품군을 모두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Crown Cap, ROPP Cap, Plastic Cap, White Cap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rown Cap은 우수한 밀봉성능과 고속 캡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두께와 내면 인쇄 등 고객 맞춤형 기능을 지원해 주류·음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ROPP Cap은 고순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녹 발생을 방지하고, 내용물 교환·위조를 방지하는 보안 기능과 손쉬운 개봉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기능 제품으로 평가된다. Plastic Cap은 경량성과 개봉 안전성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색상·형상 설계가 가능하고 위조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화장품·식품·제약 등 여러 산업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동사는 KS·ISO 등 국내외 품질 인증과 자체 품질검사 체계를 통해 제품 표준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업체와의 기술 도입 및 협력 확대를 통해 병마개 제품의 성능·안정성 향상과 공정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White Cap은 진공형 금속제 구조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며, 미국 SILGAN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고온 살균(120℃ 이상)에 대응하는 Retort용 30RTB까지 공급함으로써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2022~2023년에는 11mm 스파우트(Spout) 포장재 개발, 세제·위생용 11mm 스파우트 Cap & Body 개발, 분리 배출이 용이한 ‘컨디션’ 신형 외캡(사출 Cap) 개발, 의료용 스파우트 Cap & Body 개발 등 다양한 신제품 R&D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주류·음료 시장뿐 아니라 생활용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포장 등 신규 응용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 경량화 기반의 고품질 유리병 생산기술

동사는 유리병 경량화 기술을 핵심 생산역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원료 배합을 최적화하고 병체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설계·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충격 강도와 내열성을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획기적으로 낮춘 유리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KB 경량생수 250(145g→115g), 경량수출소주 360(194g→151g), 경량맥주 330(180g→143g) 등 다수의 제품에서 초경량화 기준(Lightness Index ≤ 0.69)을 달성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경량화를 구현하였다. 또한 ‘BLUE GREEN’, ‘참나무통 맑은소주’ 등 신규 컬러 개발과 KS L 2501 유리병 규격 인증 확보를 통해 품질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자동 검사 시스템을 통해 규격 미달 제품을 선별함으로써 주류·음료 등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고품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 파유리 재활용을 활용한 친환경·고효율 공정

동사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유리를 선별·세정해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물질 제거 및 입도 관리 기술을 통해 순도 높은 파유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파유리 투입 비중을 높임으로써 원재료 사용량을 줄이고 유리를 용융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순환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또한 생산공정은 열효율 향상과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의 유리사업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술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10. 경량화 기술

그림 11. 파유리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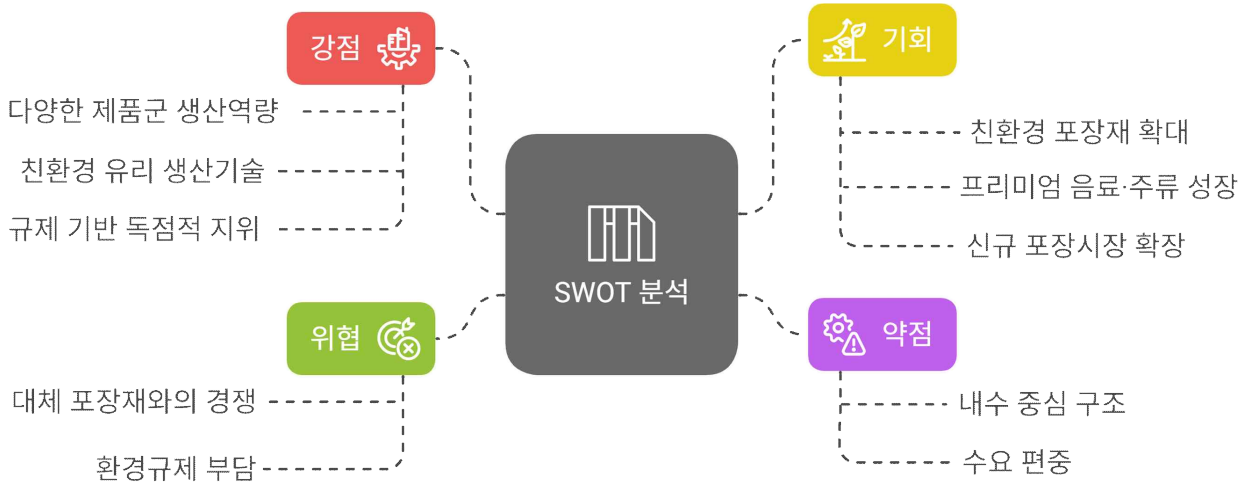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환경정책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동사는 환경경영방침 아래 대기오염 저감 설비 운영, 배출가스 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공장에는 집진시설과 저NOx 버너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정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용해·성형·서냉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자원순환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ESG 중심의 생산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리·병마개 등 전 사업부의 품질경영 체계와 연계되어 동사의 책임경영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다양한 제품군 생산역량: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속·비금속 병마개 전 라인업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친환경 유리 생산기술: 유리병 경량화 및 파유리 재활용 공정을 확보하여 원료절감·에너지 효율·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
- 규제 기반 독점적 지위: 국세청 지정 납세병마개 제조사로서 안정적인 주류 포장용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2. 약점 (Weaknesses)

- 내수 중심 구조: 물류비·파손위험 등 산업 특성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제한적임.
- 수요 편중: 주류·음료 중심의 수요 구조로 성수기·비수기 차이가 존재함.

3. 기회 (Opportunities)

- 친환경 포장재 확대: 재활용·ESG 중심 트렌드로 유리병·알루미늄 캡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임.
- 프리미엄 음료·주류 성장: 고품질 포장재 수요 증가로 병마개·유리병 고부가 제품군 확대 기회가 있음.
- 신규 포장시장 확장: 스파우트·신형 외캡 등 R&D 성과를 기반으로 생활용품·의약외품 등 신규 분야 진출이 가능함.

4. 위협 (Threats)

- 대체 포장재와의 경쟁: 일부 제품군에서 종이·플라스틱·캔 포장재로의 전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환경규제 부담: 배출·에너지 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 위험이 존재함.

IV. 재무분석

2024년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2024년, 동사는 유리사업, CAP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매출 증대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2,59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가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은 124억 원을 나타내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145억 원 증가하며 흑자전환 하였다.

■ 2024년 매출 증가세 유지

동사는 유리제품 제조 및 화장품 매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2024년 결산 기준 전체 매출의 36.4%는 유리 사업, 51.3%는 CAP 사업, 11.7%는 플라스틱용기 사업, 0.6%는 화장품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최근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2,35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2023년에는 유리사업 등 주요 사업 부문 수주 증대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8% 상승하여 2,510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 동사 매출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2025년 2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여 1,912억 원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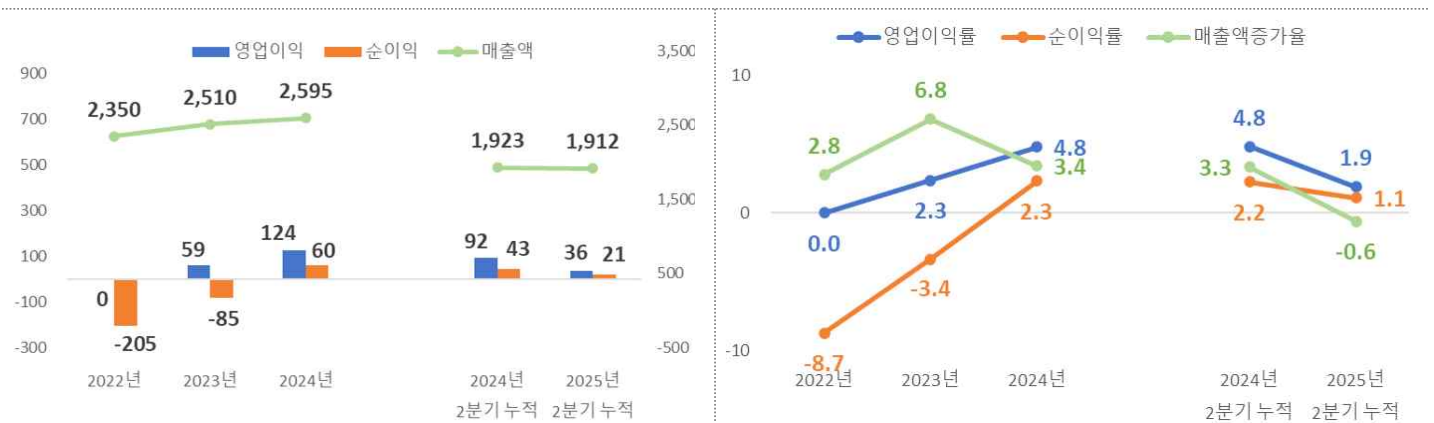
■ 2024년 영업이익 확대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2023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6.8% 성장함에 따라 원가 및 판매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억 원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화환산손실 등 영업외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법인세수익이 인식되며 당기순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120억 원 축소되었다.

2024년에도 동사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원가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 또한 65억 원 확대되며 영업이익률이 4.8%로 상승하였다. 금융수지 및 기타수지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이 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동사의 수익성은 2022년 이후 지속 개선되었다. 2025년 2분기에는 매출액이 하락함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12.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3분기 결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09.), 분기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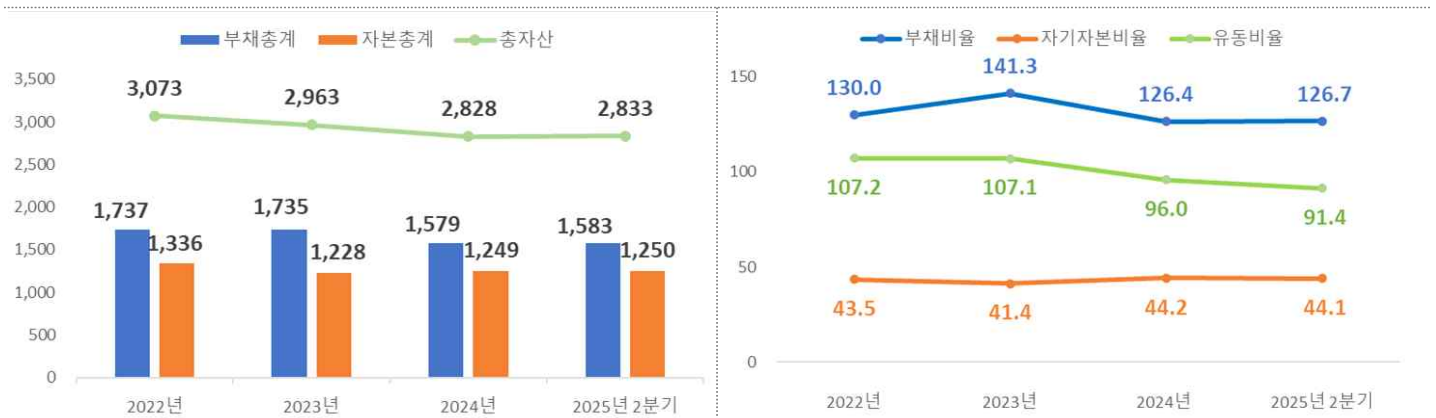
■ 산업 평균 대비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2023년 결산 기준, 동사는 총자산이 110억 원, 부채총계가 2억 원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총계는 108억 원 축소되었다. 유동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총계 감소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11.3%p 상승, 자기자본비율은 2.1%p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과 무형자산이 감소하며 총자산이 전년 대비 135억 원, 유동부채 증가에도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자산이 감소하며 부채총계는 156억 원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전년 대비 11.1%p, 부채비율은 14.9%p 하락하였다. 자본총계가 21억 원 증가하며 자기자본비율은 44.2%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5년 2분기에는 비유동자산의 증가로 총자산이 5억 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모두 증가하며 부채총계가 4억 원 확대되었다. 유동비율은 2024년 말 대비 4.6%p 하락하고,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동사는 부채비율이 동일 산업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으로 재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3.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3분기 결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03.), 분기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1.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4Q2021 ~ 3Q2022)	2023년 (4Q2022 ~ 3Q2023)	2024년 (4Q2023 ~ 3Q2024)	2024년 2분기 누적	2025년 2분기 누적
매출액	2,350	2,510	2,595	1,923	1,912
매출액증가율(%)	2.8	6.8	3.4	3.3	-0.6
영업이익	0	59	124	92	36
영업이익률(%)	0.0	2.3	4.8	4.8	1.9
순이익	-205	-85	60	43	21
순이익률(%)	-8.7	-3.4	2.3	2.2	1.1
부채총계	1,737	1,735	1,579	1,633	1,583
자본총계	1,336	1,228	1,249	1,246	1,250
총자산	3,073	2,963	2,828	2,879	2,833
유동비율(%)	107.2	107.1	96.0	96.6	91.4
부채비율(%)	130.0	141.3	126.4	131.1	126.7
자기자본비율(%)	43.5	41.4	44.2	43.3	44.1
영업현금흐름	-79	125	268	207	108
투자현금흐름	-158	-84	-81	-51	-133
재무현금흐름	61	-27	-161	-168	-13
기말 현금	121	134	158	125	12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09.), 분기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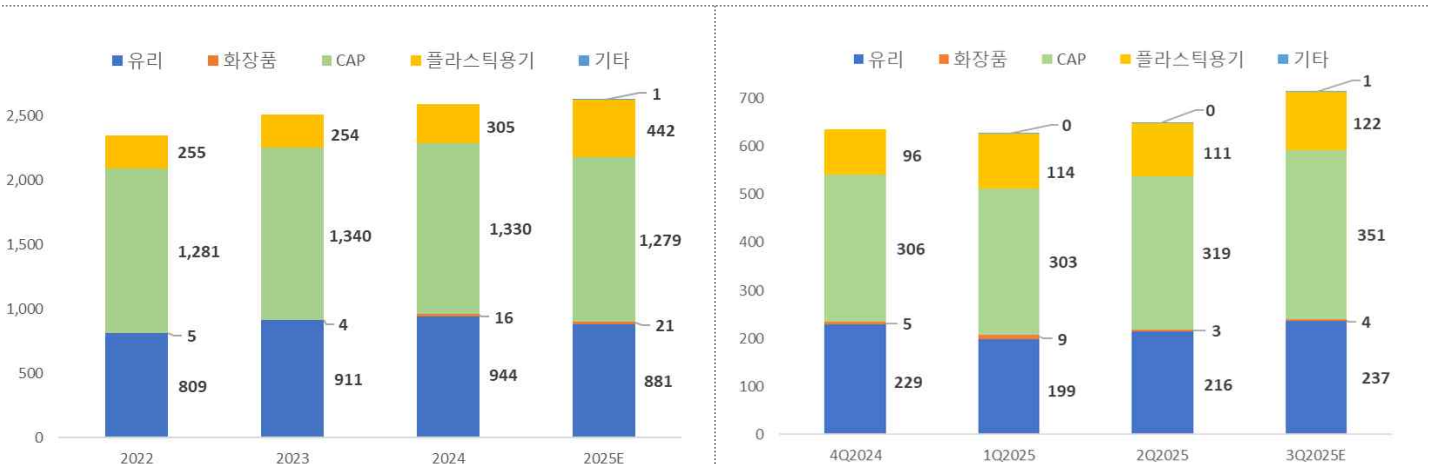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유리, 병마개, 플라스틱 용기 및 화장품 사업을 중심으로 포장·용기 산업 전반에서 다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유리사업부는 주류·음료·제약·화장품 업계에 공급되는 포장용 유리병을 생산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 특성상 높은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Cap사업부는 금속·플라스틱 병마개를 생산하며 국내외 다수 음료·주류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국내 지정 제도에 따른 납세병마개 생산 자격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리·병마개·플라스틱 용기 산업은 음료·주류·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점진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유리사업부는 친환경 패키징 수요 확대 및 해외 주류시장 공략에 따라 추가적인 판매 증가가 예상되며, Cap사업부는 생수·탄산·저도주 확산 등의 시장 변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용기 사업부는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북미·유럽 수출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용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동사는 다각적 사업구조와 풍부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3분기 결산 기준)



자료: 사업보고서(2024.09.), 분기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2.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3분기 결산 기준)

항목	2022년 (4Q2021 ~ 3Q2022)	2023년 (4Q2022 ~ 3Q2023)	2024년 (4Q2023 ~ 3Q2024)	2025E (4Q2024 ~ 3Q2025)	4Q2024	1Q2025	2Q2025	3Q2025E
매출액	2,350	2,510	2,595	2,625	636	626	649	714
유리	809	911	944	881	229	199	216	237
화장품	5	4	16	21	5	9	3	4
CAP	1,281	1,340	1,330	1,279	306	303	319	351
플라스틱용기	255	254	305	443	96	114	111	122
기타	0	0	0	1	0	0	0	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09.), 분기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친환경 기술 강화와 파트너십 확대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

동사는 경량화·재활용 중심의 친환경 기술 경쟁력과 산업 내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과 시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전략적 변화는 ESG 트렌드 강화와 산업 간 시너지 확대에 부합하며 향후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장재 산업 내 친환경·저탄소 트렌드 부각

동사는 유리병 경량화 및 파유리 재활용, 병마개 폴라인업 생산 등 친환경·고효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산업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분석자료에서는 동사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참여 및 저탄소 포장재 개발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동사의 친환경 기술과 생산체계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며, 관련 정부 정책·브랜드사의 ESG 수요 확대와 맞물려 사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자사주 동맹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광동제약이 지난 10월 1일 동사 및 삼화왕관·삼양패키징에 자사주 373만 4,956주(지분율 약 9.5%)를 처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사 역시 해당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력사 간 자본·지분 관계의 강화는 동사가 포장재·패키징 산업 내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원료 조달·생산 설비·시장접점을 공유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제휴는 동사의 병마개·유리병 사업부문이 다양한 산업용 포장 솔루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금비는 화장품 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유리 용기 제조 및 수출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유럽과 일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동남아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원가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가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Gemini

금비는 최근 음주 문화의 변화에 힘입어 하이볼 중심의 중저가 제품과 프리미엄 맥주 수요 증가로 유리병 판매가 급증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 주가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일본 수출 확대, 중국 시장 정상화,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유럽 진출과 원가 개선 전략이 결합되어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안정적인 이익 증대가 기대되며 투자자들의 긍정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출처: Grok

금비(00887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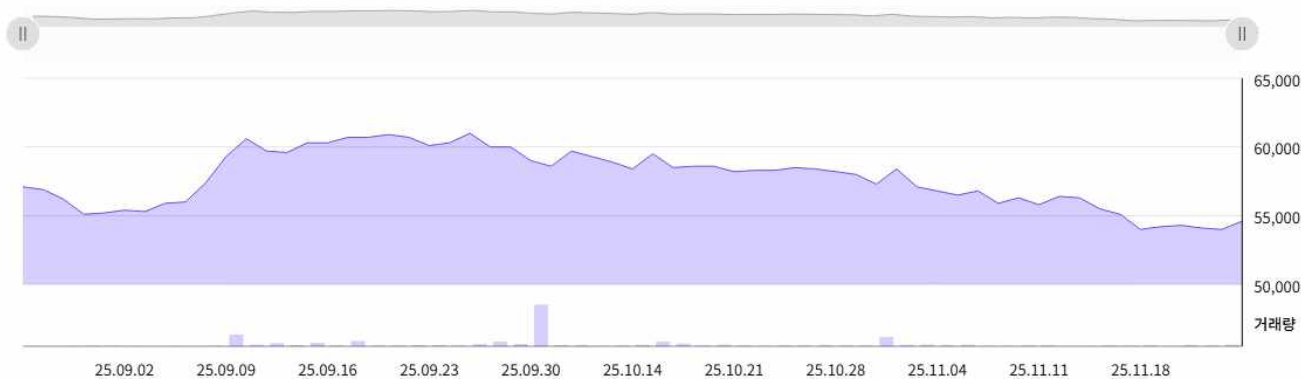
008870 코스피

기준 : 2025.11.25 | 단위 : 원, 주, %

54,600 ▲ 600 +1.10%

전일	54,000	고가	54,900	거래량	1,017 주
시가	54,900	저가	53,400	거래대금	55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5.11.2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주)금비	X	X	X